

우리 수령님의 범원 꽃피는 영광의 대지

사동구역 장천남새 전문협동농장에 깃든

불멸의 자축을 더듬어

어버이수령님께서 네로하신 봄으로 농장의 조련길을 걸으시며 새년 가을에 꾸 다시 오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농장.

다음해 그 날 오늘 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장천농장원들파 약속하신 날이라고, 그들이 수령님을 그리며 울고있을 생각을 하니 청선길을 가는 나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신 눈물겨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땅.

장천땅을 향한 취재차가 수도의 중심부를 제 몇나기도 전에 우리의 가슴은 그 나날의 사연들로 하여 걱정에 젖어들었다.

최한하게 안겨드는 마음은 이를테 없는 한족의 명화였다.

풍년은 날세 말을 돌아보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차례로 모습을 향상한 모자이크화와 혁명사적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영광탑, 가없이 걸쳐진 온실바다, 대양时节가을기풀과 새양빛 점진한물을 지붕에 건조 떠인 현대적인 살집들, 특색있는 문화후생시설이며 타이소와 유치원, 상점, 매구장과 로스카트장, 수영장…

바로 여기가 온통 진축루상이어서 베릴란트 고장, 어버이수령님의 수심에 인봉동농장으로 옮았던 농장이란 말인가. 끄켜온 감동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이곳 관리위원회에 만족해 주었지. 그가 바로 단발미리처니에서 50여년 동안 영광의 대지에 억눌 뿐리를 내고 쟁쟁의 구술들을 목록히 바쳐 가고 있는 로역영용인 김정연관리위원장이었다.

농장에 세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자와 수심자와 뉘우친 두드름은 그의 목소리는 벌써 무너져버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갖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명도사적을 빛내이고 유물을 충실히 관찰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끝과 끝을 현실로 꽂아야 한다.》

혁명사적비 앞에서 우리에게 관리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 런 둘 생생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을 처음으로 찾으신 것은 주제 5 (1964)년 1월 어느 날입니다. 그날 농사를 짓지 못하여 블랙에 농장원들이 빙봉풀을 밭에 놓았다는 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한동안 아무 말을 없으시다가 농장의 형편을 수첩에 하나님께 적으시고, 올해에는 이 농장을 책임지겠다고, 올해에는 이 농장을 절정으로 추어세워야 하겠다고 뜨겁게 표시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50여년전에도 이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떠나신 다음날 장천땅에는 풍물은 일이 펼쳐졌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살풀과 영기지, 가지가 생활필수품들이 도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응원으로 결산분배에 품종별로 변모된 농장을 찾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농장에서는 온실남새생산의 천령 단위, 온나라의 본보기 농장으로 구별되며 대한 파업을 세워주시고 장원지구간 철령성인도 어려치거나 지도해 주시었으며 전설에서 나서는 봄제를 물을 물고 주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리고 세워진 새상만주, 너성들의 거울목도리에 이르기까지 농장원들의 생활상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장천땅의 천연의 맥사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이 농장을 수도의 이틀은 남세생산기지로 전년 시켜주기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의 조련길에 끌어온 사장과 교묘의 사육을 세기시켰다.

어버이수령님과 같은 인연을 맺은 장천땅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더욱 눈부신 비약과 발전을 수놓게 되었다.

농사를 잘 지어 농장원들이 계

언제인가 관리 위원장이 어버이수령님의 진강을 바라며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사실도 감회깊이 회고하고 또 언제인가는 영웅판례 위원장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받아보시며 풋길은 훤히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둘을 수록 장천땅의 역사

을 위하여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가치는 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항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주신 것은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한동안 아무 말을

없으시다가 농장의 형편을 수첩에 하나님께 적으시고, 올해에는 이 농장을 책임지겠다고, 올해에는 이 농장을 절정으로 추어세워야 하겠다고 뜨겁게 표시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50여년전에도 이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떠나신 다음날 장천땅에는 풍물은 일이 펼쳐졌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살풀과 영기지, 가지가 생활필수품들이 도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농장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응원으로 결산분배에 품종별로 변모된 농장을 찾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농장에서는 온실남새생산의 천령 단위, 온나라의 본보기 농장으로 구별되며 대한 파업을 세워주시고 장원지구간 철령성인도 어려치거나 지도해 주시었으며 전설에서 나서는 봄제를 물을 물고 주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그리고 세워진 새상만주, 너성들의 거울목도리에 이르기까지 농장원들의 생활상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장천땅의 천연의 맥사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이 농장을 수도의 이틀은 남세생산기지로 전년 시켜주기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의 조련길에 끌어온 사장과 교묘의 사육을 세기시켰다.

어버이수령님과 같은 인연을 맺은 장천땅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더욱 눈부신 비약과 발전을 수놓게 되었다.

농사를 잘 지어 농장원들이 계

지고 일도 더 잘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어느 한 살림집에 블리시어서는 천어버이의 딸심한 심정으로 창장에 천장한 접기류를 우기위로 얼풀이 더욱 세차게 터번을 끌어 한 원통형이었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 1세대 제 1선창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빼어내기

기고 온실남새생산의 천령 단위, 온나라의 본보기 농장의 영예를 끌어들이

빛내여 가려왔다.

이번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새

이웃 농장원들은 최근 몇해동안 활

으로 궁지났을 걸을 걸어왔다.

هما마다 정보망 수립의 흙보살비

로 기기질복합화를 빠르게

온실남새생산기지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난관을

나타나고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

데에서도 농기계전시장을 찾으

시고 어려가지 농기계들과 부속품

들, 소농기구들을 보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전시품들을 보이주시며

미군들에게 천재적이며 농물풀

은 놀라워졌다.

농업전선의 병기장!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기지들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 1세대 제 1선

창장호인 농업전선의 병기장이다.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기습을

쫓아주었다.

농업전선의 병기장!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기지의 일

군들과 농기계부문에 대신하는 것은

물론 많은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사일을 최적화에 절실히 하여

일부종족에 적극 이바지 할수 있는

천재적이고 농물풀적인 기계들이

라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는 금성뜨락포로 광장에서

수백대의 새형의 80hp트랙포

들을 보게 된 것이다. 그이의

운정길은 말씀을 들판방과 광장

을 헤쳤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울고 일군들을 두둔할

수능력을 적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원수님의 말씀에 저도

당의 믿음을 한생의 재부로 안고 사는 참된 선동원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남덕청년탄광 1갱 채탄 1중대 2소대 선동원 민히선동무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피아해 가는 우리 조국의 억센 술길에는 일어와 초소마다에서 대중을 기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주동하는 당호급전선일군들의 불같은 열정과 헌신이 깃들어있다.

오늘 우리는 38년간 석탄증산을 위해 한몸을 꽂고拼搏하며 한동안에 걸친 헌신을 했지만 그들이 기여한 것은 당호급전선일군들의 불빛, 사회주의 윤리를 굳건히 지키는 당의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담줄 양위원 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밟길을도 같이하며 당을 맴그니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 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속에서 성장의 자우자율을 이어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으로 모범선동원의 영예를 지닌 남덕청년탄광 1갱 채탄 1중대 2소대 선동원 민히선동무,

그가 걸어온 길은 우리 당시 바라는 창원 선동원은 어떤 사람이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새겨준다.

나는 선동원이다!

남의 사람들은 누구나 민히선동무를 『민족』이라 부른다. 짙은 까마귀는 딱작길에 주저없이 첫 자유를 내짚은 단발미리치네가 기록하여 뒷풀이를 정답이 지어온 예정에 찾아오리.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면 동무가 나를 잊으려라. . .

집으로 돌아왔으나 민히선동무는 좀처럼 홍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선동원! 하고 외워보니 계월먼저 머으르는것이 키리마시태의 붉은 선동원 리신 자랑송이었다.

어느 걸 끝간에 맨나루가 너너치 못한것을 보면 그걸로 정비소에 가서 떠겨를 지게에 저오고 일손이 달리는 조합원세대들을 찾아 마땅히 일하고 주전에에서 능끼를 들여오는 이주미니의 집으로 달려가 박가마도 가서 주면서 끄러운 전정으로 작업단원들을 이끌었다면 빠진자영웅.

그런 창원 선동원이 되려고 나는 파운 무었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는 한밤을 뿐만으로 새웠다.

선동원이라는 자각은 민히선동무를 더욱 불같하게 하였다. 집에 들어오면 『로동신문』을 펼쳐놓고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 애썼고 선동원들을 위한 활동서도 나오면 남편에게 가져다 보곤 하였다.

남기는 줄 모르고 고양자카드를 만들 때면 『장방을 그렇게 새울 차비나?』 하는 어머니의 걱정어린 윤성이 울리곤 했다.

잠자리에 듣는 노랫말은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사상일 군주, 전국의 초급선원일 군人们的에 대한 찬양에 아름다워 헤어졌다.

제작된 선동원에게는 차운을 전정으로 작업단원들을 주면 더 좋았던 것이다.

언제 봐야 이아하고 일육십만은 치러났다. 세소하지만 사내들을 전주시 웃물암 일자리를 내는 혁신자. 그래서 더 정이 가고 믿음이 깃았다.

그를 대견히 바라보느라 소대원들에게서 물은 가지자기의 이야기들이 들이켜졌다.

어느 날 교대를 거의 앞둔 시작이었다.

마지막단차를 끌어낸 민히선동무는 흐흐한 마음으로 세계에 들어다보았다. 교대시간까지는 아직 40분이 남아있었다. 석대분은 더 할수 있는 시간이었다.

잠시후 민히선동무는 조구이내에 다섯대의 단차들을 주면 더 좋았던 것이다.

『석대만 더 하자요!』

조구로 세 단이 와르르 쏟아져내렸다.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하는 처녀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단장에 울려져었다.

『했어요!』 하는 민히선동무의 『위엣』 구령이 내려서야 일손을 멈추고 내려온 청란들을 놀랐다. 단차들이 다섯대나 늘어서 있었던 것이다.

『글쎄, 민급단이 그렇겠지. 또 우릴 속였군.』

누군가의 악의없는 지침구에 치러온 땅실 웃었다. 청란들의 호방한 웃음소리가 막장을 훔들었다.

언제인가 민히선동무는 억센지구의 어느 한 광장지면을 찾았던 것이다. 단차수리에 필요로 유풍봉을 얹기 위해서였다.

『지배인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세단원이 미끄고 놓았습니다. 단차가 부족해서 미처 못나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머리고 서서 운반이라도 노래를 불리더니 유풍봉을 해결해주시오.』

당돌하고 기특한 처녀의 모습은 지배인의 마음을 녹여내고 애았았다. 유풍봉을 배내며 지고 나온듯이 단차에 떨어져온 민히선동무를 본 소대원들은 허를 쳤다.

어무시고 담하고 열정적인 처녀. 이것이 민히선동무에 대한 소대원들의 평가였고 당조직의 시선을 보는 점이었다.

문화급당위원장은 민히선동무를 이윽도록 절경길에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동무가 소대 선동원사업을 맡아야겠다.』

그리면서 그는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선동원이 참 좋은 말을 했수다.』

『자, 또 한바탕 해보기요.』

그리면서 소대원들은 일시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이번 때면 민히선동무는 선동의 위력에 대하여 새삼스레 느끼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소박하고 진실하게 선동을 했다. 소대원들이 있는 그 어터서나 그의 행정하고 열정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출근길에서도, 작업의 일정에도, 밭과 가스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다보며 동통으로 선동활동을 벌렸다. 그의 선동은 매번 새로웠고 대중과 교감도 잘되었다.

하지만 단연 선동원의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창원 탄광에 함께 일하던 그는 남들보다 더 힘껏 일하고 더 적게 자고

서 일했는데 이제 그만둔다고 맞할 사람은 없을거야.』

그의 말이 훌륭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히선동무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선풍원인 나까지 막장을 떠나면 판은 누가 캐겠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치 누가 빼앗기라도 하는 듯 안전모를 고집스레 꾹 눌러쓰고 비명피성 경으로 절을 내쳤으며 그는 속으로 웨쳤다.

『아버지, 오늘 단차를 마음껏 써보았어!』

민히선동무는 마치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차향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단전에 활생을 묻어온 한부였다.

『제국에서 선동원들에 대한 단의 밀을 누구보다 깊이 새겨안군 하였다.』

몇몇은 2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남편이 당보를 걸쳐들면 민히선동무의 가슴은 새차고 높아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이 실렸던 것이다.

온 나라의 일터와 소초들에서 혁명의 나팔수, 시대의 선도자로서 심정의 피를 흘리며 혁신선두부를 험난한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사상일 군주, 전국의 초급선원일 군人们的에 대한 찬양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이 실렸던 것이다.

온 나라의 일터와 소초들에서 혁명의 나팔수, 시대의 선도자로서 심정의 피를 흘리며 혁신선두부를 험난한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사상일 군주, 전국의 초급선원일 군人们的에 대한 찬양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이 실렸던 것이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나도 대회에 참가된다면···』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엄숙한지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말하였다.

</div

